

道, 통합 '찬성몰이'에 혈세 4억 3천 낭비

권요안 도의원, 예산 집행 강력 질타 "완주군민 반대 의사 무시한 채 완주-전주 통합 기정사실화 홍보, 민생예산 절박속 혈세 정치적 악용"



권요안 도의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년 반 동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홍보·여론조사·캠페인 등에 총 4억 3천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의사와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전북자치도는 리플렛 제작, 전광판 광고, 유튜브·카카오톡 홍보, 차량용 스티커 제작까지 도민 세금을 퍼부으며 사실상 통합 찬성 홍보전을 벌였다"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완주군민은 이미 세 차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전북도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통

합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농업·복지·일자리 같은 절박한 민생 예산은 늘 부족하다면,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통합 홍보에만 수억 원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도정이냐"며, "전북자치도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붓는 홍보기관인지 전북자치도는 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권요안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특정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행태, 완주군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예산을 낭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질타했다. /장정철 기자

법원 판결에 새만금공항 '빨간불'...전북 정치권 전력투구

김관영 지사 "항소 돌입할 것" "도민 염원·국가균형발전 역행 새만금공항, 필히 완수할 과제" 민주전북도당 "즉시 항소 촉구"

법원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비상이 걸리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지사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하여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다"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 이래,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상황을 보며, 우리는 과거 새만금방조제 몰락이 공사의 사례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데 1991년 시작된 방조제 사업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고, 결국 2006년에서야 불막이에 성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은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도민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다"고



민관 함께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난 12일 폭우로 인한 전주천변과 삼천변 등 전주 하천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주시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사진=전주시>

전제한 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로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 이원택)도 11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정당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며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란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총 756억 원...전년 대비 28% 확대 확대 개편 가족 단위 활동자도 혜택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액은 총 7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 원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 6,497명이 증가한 16만 6,303명에 달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군·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았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주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도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확대 개편돼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는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756억 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2025 진안 홍삼축제

2025 Jinan Red Ginseng Festival

9.26(수)~28(일) 마이산 북부

즐거운 상상 행복한 웃음! 다양한 가족 공연

- * 캐치! 티니핑(싱어롱쇼)
- 부무대 가족공연(마술 / 버블 / 벌룬쇼)
- K-pop댄스 공연 / 랜덤플레이댄스 · 홍삼서커스

9.26. (금)	· 개막식 · 축하공연, 불꽃파티 / 18:00	 노라조	 케이윌
9.27. (토)	· 제9회 진안고원 트로트 힐링 페스티벌 / 17:00	 박지현	 린
9.28. (일)	· 청소년 문화축제 / 15:00	 하이키	 김완선
	· 폐막공연 / 18:00	 이상밴드	 진해성

진안홍삼축제

오감이 즐거운 흥미진진 프로그램!

- 향민원의 행복(진안홍삼제품 할인 판매) · 각종 홍삼, 인삼 체험 · 키즈존
- 친환경 유아놀이터 · 진안홍삼 빙고(선착순 200명) · 삼삼한 주제관 · 키즈카페
- 홍삼 in 파스타(홍삼파스타나눔행사) · 홍삼 깎두기 담그기 · 길거리 크로스핏 등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주 권·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문의처_063)430-2391-3 www.jinan.go.kr/festival

전북, 아나미비아와 청소년 스포츠 교두보 마련

‘드림 키즈 캠프’ 의향서 체결 양국 청소년 축구·문화 교류 11월 U-11 축구 국제초청 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서 나미비아 정부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스포츠 외교 교두보를 마련하는 이번 협력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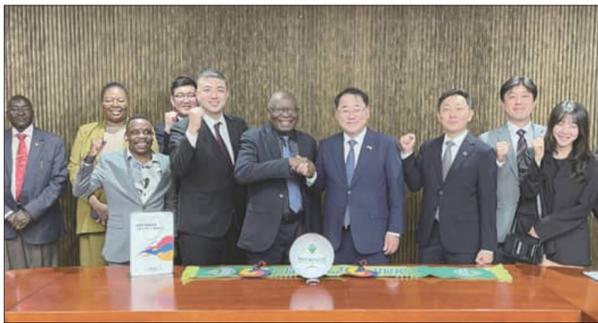
9일부터 15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를 찾은 전북자치도 아프리카 출장단은 11일 빈트후크를 방문해 나미비아 교육·혁신·청소년·스포츠·예술·문화부와 ‘드림 키즈 스포츠

캠프’ 추진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림 키즈 스포츠 캠프’는 청소년 간 우정을 키우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류 프로그램이다. 전북과 나미비아가 번갈아 청소년을 초청해 축구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류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첫 시작으로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나미비아 U-11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키로 했다. 이들은 전북 유소년팀과 친선 경기를 갖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



전북도 아프리카 출장단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를 방문해 지난 11일 빈트후크서 나미비아와 ‘드림 키즈 캠프’ 추진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번 나미비아 정부 및 유소년 축구단과 전북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스포츠 외교 협력을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장정철 기자

한병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엄벌해야”

사고 매년 증가, 5년간 408건 아동·고령자 피해 많아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면서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가 87명(20.1%), ‘60세 이상’이 79명(18.3%)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2020년 6건이었으나 2024년 60건으로 늘었다.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이어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2026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1,054억 확보

재해취약지역 101개 지구 대상 맞춤형·통합형 대응 강화 풍수해·급경사지 등 선제적 정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국비 1,054억 원을 확보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651억 원 대비 162% 규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총 101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중 신규 22개 지구를 포함하여 계속사업 77개, 마무리 단계의 2개 지구가 포함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을 살펴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개 지구 49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개 지구 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

개 지구 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4개 지구 4억 원 등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강화된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단위의 침수, 붕괴 등 재해 취약 요인을 통합적으로 발굴해 하천·하수도·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에서 탈피해 지역 맞춤형·통합형 정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정밀

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드론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년 대비 162%인 1,0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300억 긴급 지원

관세대응 긴급 자금 100억 신설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1년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외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관세대응 수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 200억 원으로 구성되며 15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관세대응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자금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이 확인되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해외 수출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 실적 이 있는 간접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모든 업종의 수출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이자를 2% 이차보전한다. 이번 자금은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한도 외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만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은 기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 가운데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200억 원 규모(대출원금 기준)로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동일한 이차보전 조건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도지사, 14~15일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석

국제스포츠 운영 시스템 전향 ‘옵저버’ 참여로 운영 체계 살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이벤트 운영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국제스포츠계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고 올림픽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김 지사와 도 올림픽추진단은 대회 기간 중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스포츠대회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실무를 배우는 옵저버(Observer)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경기장 운영 시스템과 선수 지원 체계, 지속가능성 전략 등 국제대회 운영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을 포함해 영국(런던), 독일(뮌헨), 인도(아메다바드) 등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는 6개 도시 대표단이 공동 참여한다. 육상 종목이 올림픽에서 단일 종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현장 학습은 올림픽 유치 준비의 핵심 과정이 될 전망이다.

또 세계육상연맹 임원진 및 각국 스포츠계 주요 관계자들과의 교류로 국제스포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북을 세계 스포츠 무대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단일 종목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만큼, 선진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주시 완산 체련공원과 완산 수영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최형열 도의원, 전주 체육시설·침수 피해 현장 점검

완산 체련공원수영장 시설 점검 폭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주시 완산 체련공원과 완산 수영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 관계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안전장비 점검, 노후화 현황, 시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 지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주시 완산구 효삼교회 인근 주택과 공장, 마을길을 직접 둘러보고, 도 관계자 및 전주시청 공무원과 함께 현

장을 확인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썼다.

최형열 위원장은 “체련공원과 완산 수영장은 전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쾌적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전주시 홍보대사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위촉

2년간 전주시 홍보활동 전주 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 전주시 홍보대사가 됐다. 전주시는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하 차오름)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으로 차오름은 향후 2년간 전주시 주요 행사와 축제 공연을 통해 전주의 문화 예술역량을 널리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차오름은 지난 2020년 결성된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과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창작 국악단체로, 전통 악기의 깊은 울림과 세련된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한 독창적 무대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차오름은 지난 2021년 앨범 ‘호



전주시는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하 차오름)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람이 담배피던 시절’을 발매하고, 다수의 공연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음악적 정체성을 표현했다.

2022년에는 대만 ‘골든 인디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안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부문에 최종 지명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관객들에게도 한국 음악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차오름은 또 지역문화진흥원의 ‘청춘 마이크’사업에서 우수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또 △차오름 on the 땅작 △Hello, 국악 △훈민정음 자음별 구역 등 꾸준한 창작 공연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에게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음악 저변확대에서도 앞장섰다.

이유빈 대표는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으로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설레고 영광”이라며 “전주가 가진 다양한 매력과 자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차오름의 음악은 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며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번호판 영치

<사진=전주시>

전주시, 하반기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징수 추진

회피시 가택수색 등 강력 제재

전주시가 2025년 하반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는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은 2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징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족제 영치와 공매 처분 대상에 오른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역량 강화 ‘총력’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역량 강화를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국제대회 유치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참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 시장은 이번 일본 방문 일정 중 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주요 경기를 참관하고, 세계육상연맹(WA)이 주관하는 옵저버(Observer)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옵저버 프로그램은 경기 운영과 선수 지원, 미디어·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 전략 등 대회 전반에 관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주시를 비롯해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인도 아메다바드 등 6개 도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시는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현재 조성 중인 전주시 복합스포츠타운 내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 육상경기장은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시설로 건립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규모는 물론 국제 육상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도시 위상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참관은 전주가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과 육상경기장 건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의용소방대 8천여명, 폭염 안전지킴이 큰 ‘역할’

예방교육·순찰·돌봄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이 폭염 속 도민 안전지킴이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전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362개 대 8220명의 대원이 참여해 도민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의용소방대는 폭염 시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예방수칙 교육과 1848건 실시해 7873명 도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온열질환자 발생이 잦은 논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195건의 순찰을 진행하며 얼음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안부전화와 돌봄활동 583건을 추진하며 전문강사를 활용한 응급처치 교육도 병행했다. 동시에 부안 의용소방대는 직접 생수와 음료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에 전주완산의용소방대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미담이 이어졌다.

공은태·윤정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지만 작은 땀방울이 모여 큰 안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18일부터 자원순환교육 운영 총 10회 약 250여명 참여 예상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지자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 모집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초등학교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전주시 주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자원순환과 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견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경우 총 10회에 걸쳐 약



25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광역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장 등 평소 쉽게 갈 수 없었

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내가 버린 생활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 체험과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적 이해 등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과 꼼꼼한 현장 점검에 임하고 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역에 집결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친환경 소각 기술과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 견학이 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전주시니어클럽, 완산시민경찰연합회 등 5개 기관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견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장, PM 충전사업장 안전컨설팅 진행

배터리 화재 ‘사전 차단’ 총력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관내 퍼스널모빌리티(PM) 충전사업장을 대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집중 추진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쿠터, 쌍성, 스윙 등 주요 충전사업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해 △충전 및 보관 실태 확인 △배터리 레간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화재확산 요인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전국 화재사례를 공유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보관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최근 연이어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덕진소방서는 △충전은 반드시 직원 감시하에 실시하고 퇴근 후 충전 금지 △1회 충전 시간은 평균 9시간으로 장시간 방치 금지 △배터리 레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보관 시 소분 원칙 준수 △소방시설 설치 컨설팅 등 핵심 수칙을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2025년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 참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025년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전북농협 하반기 농·축협 채용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일 진행된 채용설명회는 지역 우수 인재 취업매칭 및 타지역 유출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채용 설명회는 지역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1:1 취업 컨설팅 △상담부스 운영 △면접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됐다.

더불어 전북농협 부스에는 농·축협 입사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몰렸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농협 소개 및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농·축협 동시채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농심전심(農心天心)’운동 홍보를 통해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및 이미지 제고 하는 등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전북농협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조민 기자

전북소방 신입 소방공무원들, 광주소방학교서 교육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신입 소방공무원 37명 교육훈련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광주소방학교에서 실시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교육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인재 양성 첫 관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체계적인 기본 소양과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해 현장에 즉시 투입 인력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생들은 화재·구조·구급 등 기본 직무과목은 물론 재난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익히게 된다.

더불어 실화재 대응훈련, 인명구조훈련 등 실제 상황과 연계된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

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과정에는 기본 체력 단련, 소방 장비 운용 훈련, 소방시설 이해 교육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현장 기술 습득을 넘어 재난 대응 전반에 걸친 종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협업 능력을 강조하는 팀워크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향후 각 소방서 배치 이후 조직 적응과 현장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강인한 체력과 현장활동 역량을 동시에 길러 국민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 안도와 믿음을 주는 인재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여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 탄소 저감 사료 개발 전시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삼일동안 진행된 '2025 한국 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25 한국 국제축산박람회'는 1999년 개최된 박람회로 올해 13회째 맞았으며 2년에 한번 열린다.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올해 첫 박람회 참여는 사업 내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M-PID 사업단) 부스인

청에 의한 참여로 확인됐다.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M-PID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를 활용한 탄소 저감 사료를 개발해 전시하고 사업내용 등을 설명한다.

특히 대구 EXCO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 주제로 개최됐다.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이 개발한 탄소저감사료는 동물 먹이로 활용 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홍보와 수행기관별 박람회 참가로 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박람회 주요 내용은 축산 기자재 및 시설, 축산물 위생·가공처리 시설 등 기

업·기술 전시, 배합사료 기자재 및 생산품, 사료첨가제, 영양제 등의 사료 분야 '동물약품, 질병예방, 위생 및 방역' 등의 약품 분야, 품종, 종축개량, 생명공학 종축 분야, 생산기술, 농장경영, 컨설팅, 농장 HACCP 생산 분야 등 다양한 축산 분야의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이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각종 시상식과 기념식, 소비자 및 함께 하는 판촉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도가 2022년 과기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에 공모·선정돼(주관기관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관리기관 (재)전북테크노파크) 2022년

도부터 전북도 M-PID 사업단을 구성하고 매년 꾸준히 전북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경제동물에 대한 혁신 과제를 수행해 왔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한국국제축산 박람회에 참가해 참여기관별 그동안의 과제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국내외 알리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영춘 단장은 "탄소배출 저감 과학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실에 경제동물 건강증진 및 온실 저감용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경제동물 제재 혁신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LX부사장, '일자리 창출 유공' 산업포장 수훈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고용 확대 기여 공로 인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이 '2025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부문 산업 포장을 수상했다.

이주화 부사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부사장이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2024년 공사 최초로 '미래 내일 일 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소

한 지적축박·공간정보 분야의 문턱을 낮추고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가 대표적인 청년 일 경험 지원 사례로 꼽혔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주화 부사장은 "기반 성장의 중심점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은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정혜민 기자

국민연금,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식 189조원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보관·관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 안정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해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4개사를 선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국

내 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국내자산 사무관리사로 신한펀드파트너스를 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를 분산하고 투자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선정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자산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선

정된 은행은 1순위부터 3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수준이다.

사무관리사는 국내 자산 위탁운용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 운용행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상대상 기관과 세부적인 기술 협상 등을 진

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 평가 및 계약 연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가능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 레이싱 대회 개최

내달 18~19일 남원서 열려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 레이싱 대회'를 오는 10월 18일~19일 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5학년 이상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등부는 2~4명 팀이 참가해 10월 19일 하루 동안, 중·고등부는 2인 1팀으로 10월 18일부터 이틀간 경기를 치른다.

이번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 레이싱 대회'는 소프트웨어(SW)미래재용사업(전북)의 일환으로, 2025 남원국제드론대전 with 로봇과 연계한 대회다.

참가팀은 지급된 RC카 키트를 활용해 팀당 2대의 차량을 제작하며, 코딩과 조립을 거쳐 장애물 레이싱에 도전한다.

대회에서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창의적 디자인과 완성도를 평가하는 디자인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제작·코딩 역량을 미리 학습할 기회도 제공받는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모집은 21일까지 온라인(구글폼)으로 진행되며, 총 30개 팀 내외(약 60명)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TP와 SW미래재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행안부-전기안전공사,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1만1천여 곳 전기안전 점검·교육 생활안전 향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수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양해각서)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11,000여 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절연저항 측정, 누전차단기 및

배선, 개폐기 점검 등 주요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불량 차단기는 시설 개선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 화재 예방 요령과 콘센트 안전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불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가게 주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김영태 기자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ESS 구축사업 참여방안 논의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북 기업 참여 방안 모색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11일 제30차 기술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경수 위원장(전북대 교수), 기술자문위원, 이재수 회장, 집행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5년 시공능력평가 공시현황과 대외활동사항 등 정부의 ESS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토론하고 전북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경수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30회

가 되는 뜻깊은 자리로 그동안 참여해 준 위원님과 준비해 주신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제공으로 협회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수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기계 발전은 물론 고향에서의 인재를 확보하려면 ESS 구축사업 등 미래의 먹거리가 충분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자"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회는 2003년 산·학·관 전기분야 전문가(도내 대학교 전기 관련 교수 9인 및 유관기관 전기분야 9인)로



구성된 협회 자문기구이다. /김영태 기자

추진연합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 참담"

정부에 신속한 법적 행정적 절차 정비 촉구

전북 도민과 2009년 경제·사회·문화·체육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

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신속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에 따른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추진연합은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

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로 인해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규정하

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황이 없는 전북의 현실에서 지역 발전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전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중앙회-환경공단, 화평법·화관법 제도 설명회

개정 사항 이행 수도권 설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그리고 현장에서 제도·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신고물질 관리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8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부가 바빠서 대응해 주었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화평법과 화관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안전 다각적 대응 조치 나선다

유괴 예방 교육 계획 마련 유관기관 협력 통학로 학교 주변 집중 순찰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괴 및 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계획'을 마련, 지난 8일 각급 학교

에 안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에는 유괴의 유형, 유괴 예방 및 대처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아 조·중·고·고 5분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괴 및 의심 상황 발생 시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청·지원청·경찰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당 자료에는 낯선 사람 응대 요령,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 대상 유괴 예방 및 현장 대응 설명회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미 군산은 지난 10일, 전주는 11일 설명회를 진행했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도 일정에 따라 학교 관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괴 등을 포함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도교육청은 유괴 등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전북경찰청에 요청한 것은 물론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 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확충, 학교 주변 순회 점검을 강화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상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 비타민데이 행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본관 현관에서 고위직공직자와 함께하는 '2025년 청렴 비타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장들은 청렴 문구를 담은 비타민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격려하고,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타민과 함께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렴부채·청렴정책 안내자료'도 배부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청렴 가치를 공유해 더욱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신입학 전형 요강 확정

'중증장애인의 자녀형제자매' 선배정 대상자 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2일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전형 요강'을 확정, 공고했다.

2026학년도 평준화지역 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개교 5,798명, 군산 8개교 1,890명, 익산 8개교 1,680명 등 총 39개교에서 9,368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12월 19일 오후 5시까지다.

도내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학급당 정원은 전주 26명, 군산 27명, 익산 24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했다. 이는 2026학년도 고입전형을 치르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선배정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가족돌봄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을 근거리 학

교에 배정,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

응시원서는 '나이스(NEIS) 시스템과 연계한 고입지원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외의 지원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 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학교 배정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에 한해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에

따라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해 1차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 학교 배정은 내년 1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입학전형은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중 56%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원활한 고입전형이 되도록 전형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학생자치기구 연합축제 성료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지난 11일 열린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연합축제 'All or Nothing 오늘, 인생을 건 베풀기 시작된다'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새 학기를 여는 자리에서 학우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대학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전주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인문콘텐츠대학·경영대학·의과대학·사범대학 학생회가 공동으로 연합축제위원회를 조직해 행사를 기획

하고 준비했다.

축제 현장에는 주간 부스, 플리마켓, 야간 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대 최의지 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과 즐길 거리를 넘어, 학우들이 함께 교류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지역 사회와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이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학업과 대학 생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이흥기 부총장, 수소센터 유치 '숨은 주역'

산학 연계 거버넌스 형성 기반 구축 전략 마련 등

국내 최초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가 완주군에 들어서는 가운데 해당 사업 유치와 추진 과정에서 우석대학교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열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 기공식은 수소순환 경제 실현의 첫걸음이자, 지역 산업 생태계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대량으로 발생할 폐연료전지의 자원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이다.



이흥기 부총장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기관 간 협력 조율, 기반 구축 전략 마련 등 전반적인 유치 과정을 이끌며 '보이지 않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당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센터 구축 사업을

/최성민 기자

군산대, 하반기 채용 대비 '집중 취업지원 기간' 운영

국립군산대학교는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 취업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하반기 주요 채용 시즌에 맞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집중 취업지원 기간 동안 평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낮 시간대 수업이나 일경험 일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저녁 시간에도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확대했다.

국립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오연풍 센터장은 "집중 취업지원 기간 동안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을 발굴 하고 홍보해 학생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청렴줍깅' 자원봉사활동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및 남천교 천변 일대에서 청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청렴줍깅'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렴줍깅'은 플로깅(plogging)에 청렴 가치를 더해 환경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함께 실천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전주교육지원청 청렴서포터즈협의회 '청렴은(ON)'이 중심이 돼

한옥마을 거리와 남천교 주변 천변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채선영 교육장은 "환경보호와 청렴 실천을 동시에 실현하는 청렴줍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지역대학·공공 협력기관 바른주소갓기 캠페인 확대 전개

익산시는 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익산(愛) 바른주소갓기 캠페인'을 지역 사회와 함께 확대 전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복지·교육·안전·교통 등 모든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된다. 실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인구조로 인해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시는 지역 전체 차원의 바른주소갓기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시는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대학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바른주소갓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학은 신입생 등록이나 기숙사 입사 등 학내 절차와 연계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시의 인구정책과 바른주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아이의 학교, 부모님 병원, 내가 매일 걷는 산책길까지 주민등록 주소는 일상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행정 정보"라며 "주소 하나 바꾸는 일이 곧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정읍시가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일에 일괄 자동 충전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군산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천건, 26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아파트 준공과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9월 총 부과액 264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9월 정기분은 토지 및 주택(1/2)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분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드사 앱) 등 다양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 2건 등재

미륵사 목조대세지 보살좌상·복장유물 진목조사유적고 지정

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과 '진목조사유적고'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읍 상동 미륵사에 소재한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은 높이 57.2cm, 슬폭 35cm의 목조상으로, 복장유물은 후령통 일괄 6점, 다리니 14점, 경전 2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존상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활동한 조각상 색난(色難)의 조각가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불교 미술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다른 지정 문화유산인 '진목조사



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과 '진목조사유적고'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정읍시>

유적고'는 정읍 응동면 화엄사에 보관된 상하(上下)권 1책의 목판본이다. 전부를 대표하는 고승 진목의 행록을 담은 이 문헌은 유학자 김기종과 초의선사 의순이 함께 편찬했으며, 19세기 학자 김경희의 교정을 거쳐 1857년(철종

8) 완주의 봉서사에서 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치 있는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역사·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1,439억 원 규모 재해예방사업 '본격'

6개 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범람 선제적 정비

익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 1,439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재해위험개선지구는 △석탄지구 △판문지구 △목천소지구 △대조천지구 △연화천지구 △여산지구 총 6개소다.

먼저 석탄동 유천펌프장 일대를 포함한 석탄지구는 매년 여름 침수로 몸살을 앓던 대표적인 상습 피해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총 292억 원을 투입해 30톤(조당) 용량의 대형 펌프 8대 증설과

배수관로 358m 설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40%를 넘기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춘포면 판문지구는 주거지와 농경지가 섞인 지역으로, 침수가 발생하면 인명과 농업 생산이 동시에 타격을 입는 곳이다. 시는 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류지 1개소, 배수로 820m,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천동 목천소지구는 만경강의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에 시달려온 곳이다. 시는 84억 원을 들여 저류지 설치와 펌프 증설, 유입수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응동면 대조천지구는 총 535억 원을 투입해 4km 이상 제방 보강과 17개 교

량 재가설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예정돼 있다. 황등면-함라면 일대 연화천 지구는 198억 원을 투입해 총제 5.2km, 보축 264m, 교량 11개소를 정비하며, 황등-함라면 일대의 하천 범람 피해를 차단한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8년 말 준공 예정이다.

여산지구는 이달 재착공에 들어가 유수지 설치, 펌프장, 배수로 및 하천 정비 등 종합적인 수방 인프라 확충이 한창이다. 강경천, 유성천, 담자골천 등 총 3.9km의 하천 정비와 함께, 우수관로 및 배수로 3.2km가 포함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72억 원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안은 줄이고 공감은 키우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첫 발

가공시설 등 사업 연계 청년농 유입·첨단화 도모

정읍시가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읍시의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유호연 부시장, 시의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기관·농민단체 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지구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필요성·국내 유사사례 분석 △최적 모델안 제시 △사업 대상지 입지·기반시설 적정성 검토 △국가 공모사업 연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목표한다. 부지매입(25ha), 임대형·분

양형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스마트APC센터, 가공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청년농 유입과 지역 농업의 첨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수립을 거쳐, 2026년 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스마트팜 지구 조성은 정읍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현황 점검·방안 공유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이번 주말 또 다시 비 예고가 전해지면서, 군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전주시상지침장과 예보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 강수 전망과 집중호우 위험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기상청은 브리핑에서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까지 30~8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강풍과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



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즉시 국소장 및 협업부서 분야인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

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즉시 국소장 및 협업부서 분야인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10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교육비 부담 절감 등 기대

군산시가 올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간 관내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상생하는 군산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올해 10월~12월 진행되며,

예산은 5,85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된다. 금액은 나이에 따라 최소 14만 원~최대 28만 3,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며, 매월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관광시설 이용 시 상품권 환급 '호응'

정읍시가 지난 8월 20일부터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의 이용객 비중이 높은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하이어즈 복합 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관광 순환열차 유원시설에서 운영된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8월 8일 공포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813호)'에 근거해 환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약 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은 1회 이용 시 5000

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 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관의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환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관광시설에도 환급제도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의회, 추경예산안 등 35건 안건 의결

제272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가 지난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억 7백만원이며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정영미 의원)과 전주·익산·완주 메가시티 구상 철회를 촉구하는 '정치적 쟁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조남석 의원)를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창호 시공 명장 전기권 씨, 군산 명장 선정

군산시는 지난 11일 '2025년 군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전기권씨(주)중앙, 회장에게 명장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도부터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산시 명장'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 전기권 회장은 군산시에서 44년간 창호 시공 직종에 종사해오면서 12건의 특허 등록, 11건의 전사회 출품 및 기타 우수 발명품 개발 등의 숙련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우수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업계를 선도해왔다.

지난 8월 명장심의위원회(위원장 부

시장)는 서류 및 현장심사로 자격을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명장을 선정했다.

실제로, 명장심의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전기권 명장의 기술이 관내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한 길을 걸어 온 전기권씨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하며 "지역 산업 발전은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온 기술자들의 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명장제도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1군민 1후원계좌' 참여 독려

새만금도시과·환경과 장학기금 모금 동참 군민 관심·참여 도모

부안군군농민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에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와 환경과가 함께 참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새만금도시과(과장 조진곤)는 부안의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부서로서 새만금과 부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새만금 관광, 새만금 개발사업협의 등을 담당한다.

환경과(과장 최형인)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변산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정책팀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대응팀 △악취·소음 등 민원을 담당하는 환경민원팀 등 폐기물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폐기물관리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안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에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와 환경과가 참여하며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부안군>

를 담당하는 폐기물관리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안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를 담당하는 폐기물관리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안 군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자치도민체전', 고창서 경쟁 펼쳐

선수단 1만여명, 정식 37개 시범 2개 종목 기량 겨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지난 12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하며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식전행사에는 우석대학교의 태권도 시범과 동리창극단의 전통 창극 무대가 이어졌다. 또 고창출신 세계적 테너 노동용 성악가를 비롯해 김현, 정해준 가수가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인기 가수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돼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회자의 개식통고로 이어진 공식행사는 14개 시·군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개회선언과 선수단·심판대표 선서에서 이어 대회의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가 진행됐다.

이번 도민체전 성화는 고창군의 진산(鎭山) 방장산에서 채화돼 드론으로 고창읍성까지 이송되며 화제를 모았다.

첫 주자는 결혼 8개월차 신혼부부가 맡았고, 이어 14개 읍·면을 돌며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참여하며 화합과 체전성공의 열망을 담았다.

개막식 당일 10자녀를 둔 다동이 가족의 손에서 출발한 성화는 고창 출신 배드민턴 유망주 천혜인 선수가 최종 주자로 나서 성화대에 불을 밝혔다.

어어진 드론라이트쇼에선 고창의 인물과 문화, 미래 비전을 하늘 위에 그려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드론쇼는 멀티미디어 영상과 불꽃놀이로 이어져 모두가 하나 되는 환희의 순간을 선사했다.

식후행사는 트로트가수 김용빈, 손빈아, 전유진을 비롯해 아이돌그룹 비스트, 트리플에스, 정승환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화합, 감동, 희망체전이 되도록 모든 군민이 열정과 뜻을 모아 준비했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경기와 힘찬 응원을 펼쳐 특별한 전북의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고창군에서 도민체전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체전의 성공을 통해 도민 모두의 열망으로 '2036하계올림픽 유치'에 온 힘을 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체전은 14일까지 이어졌으며 3일간 14개 시·군 선수단 1만여 명이 정식 37개 종목과 시범 2개 종목(주짓수, 사격)에서 기량을 겨뤘다.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우정과 화합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고창=백종규 기자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화합, 감동, 희망체전이 되도록 모든 군민이 열정과 뜻을 모아 준비했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경기와 힘찬 응원을 펼쳐 특별한 전북의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고창군에서 도민체전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체전의 성공을 통해 도민 모두의 열망으로 '2036하계올림픽 유치'에 온 힘을 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체전은 14일까지 이어졌으며 3일간 14개 시·군 선수단 1만여 명이 정식 37개 종목과 시범 2개 종목(주짓수, 사격)에서 기량을 겨뤘다.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우정과 화합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우정과 화합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고창=백종규 기자

세대 잇는 '김제청년축제', 19일 열려

19~20일 실내체육관 일원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매년 9월 세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김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김제 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정책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열리는 김제 청년축제는 "청년, 시간을 잇다"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체험행사와 놀이공간 운영, 기념식, 청년기념의날 퍼포먼스, 청년예술인 공연, 가요버스킹, 마임공연, DJ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부모 세대의 과거 청년, 현재 청년,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 청년인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고 즐기며,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행사장은 푸른잔디밭 위 돛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로 계획됐다.

또한, 김제 특화 산업인 특장차를 활용한 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도 연계 추진해 아이들과 청소년이 실제 특장차와 관련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지역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에 공감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김제 청년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축제가 세대와 미래산업 그리고 지역을 잇는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자연속에서 가족들이 힐링하고 즐기며, 미래와 꿈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전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를 활용한 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도 연계 추진해 아이들과 청소년이 실제 특장차와 관련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지역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에 공감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김제 청년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축제가 세대와 미래산업 그리고 지역을 잇는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자연속에서 가족들이 힐링하고 즐기며, 미래와 꿈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전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치매안심센터, 18일까지 치매극복 주간행사 개최

부안군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오늘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검사와 예방,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 퀴즈, 치매예방 교구체험 등 치매극복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한 주간행사 기간, 부안군치매안심센터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 치매극복 주간행사'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안군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치매 바로알기 퀴즈와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안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극복 주간행사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책꾸러미' 무료택배

김제시(시장 정성주)시립도서관은 지역 영유아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무료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문화 운동으로 영유아에게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독서문화 서비스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김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으며, 아이 월령에 따라 △베비(신생아~18개월) △플러시(19~35개월) △보물상자(36개월~7세) 총 3단계로 나누어 제공한다. 각 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예요백, 독서 가이드북, 단계별 작은 선물로 구성됐다.

무료택배 신청방법은 오늘부터 김제시립도서관으로 전화해 수령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본과 함께 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기존과 같이 도서관에 방문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영유아들이 생애 첫 책꾸러미 선물로 책과 친해지며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중앙부처향우초청 시정현안공유·국가예산확보협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정부 국정과제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간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 소속 30여명의 향우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정 주요 현안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공유 등을 통해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우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새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용역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85억원)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15.7억원) 등 중점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한 향우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늘 향우 간담회를 통해 지역과 중앙부처 간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김제시의 더 나은 내일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우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청년친화도시 고창'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

올해 지정 목표·릴레이 간담회

고창군이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목표 달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단체 네트워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마련된 핵심 소통 창구다.

첫 순서로 고창군은 대표 청년 커뮤니티인 '고창군 청년벤처스'(대표 김현준)와 만나,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벤처스'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적인 주거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청년 주도의 문화·참여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친화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년 여러분"이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구체적인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제안된 사업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창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청년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청년 단체와 순차적으로 만나며,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발간

부안군은 복잡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절차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부서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실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등 사업비 가이드 라인과 사업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로드맵 형식으로 제시해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안군은 전 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계시판에 등록해 활용도를 높였으며, 건축공사 관련 업체와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우리 군 직원들이 건축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건축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집중 발굴

건강검진·학습지원 등 서비스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신규대상 아동 집중 발굴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보호 등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이번 발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굴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검진 △학습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특장차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

산·학·연 협력 AI 기반 경영전략 전략 특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사)한국특장차협회와 협력해 지난 11일 'AI 기반 특장차모빌리티 경영전략 및 방향'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대전환에 대응해 특장차 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

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교육은 특장차 기업 대표와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구 특장차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AI 전환의 패러다임 이행 △특장산업과 AI의 기회와 도전 △AI 시대의 경영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다뤘다.

강의는 송석민 브래니 컨설팅 대표가 맡아 실무와 전략을 아우르는 전문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교육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AI 전환의 흐름을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특강이 산업에 맞춤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강은 지역 기업 대표들이 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전략적 안목을 기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강은 지역 기업 대표들이 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전략적 안목을 기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3분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군민과 행정 잇는 소통 협력의 창구 돼 주길"

고창군이 지난 1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명예읍면장 위촉식을 열고 각 읍·면을 대표하는 명예읍면장 14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읍면장은 △윤종기(고창읍) △김정옥(고수면) △김정용(아산면) △김태우(무장면) △김안순(공음면) △표재욱(상하면) △송성호(해리면) △강명구(성송면) △천봉은(대산면) △이창열(심원면) △김영환(흥덕면) △김진열(성내면) △기호직(신립면) △김은식(부안면)씨다. 명예읍면장들은 군정 현안과 정책 방



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과 군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군정은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

다. 명예읍면장님들이 주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 다리'가 돼 주신다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균형 비전 실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재생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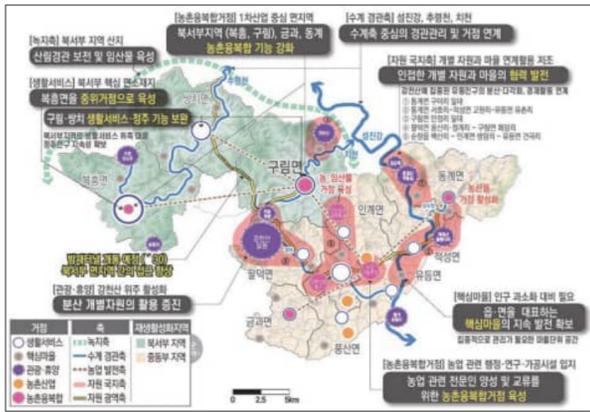
10년 중장기 농촌 발전 도모 정책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시 생활·정주·경제 융합 농촌 회복 북서부지역 '작은 거점' 생활 강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다음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순창군은 202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5개 시범수립 시군에도 포함되어 작년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전국 최초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기본계획에는 작년 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활, 정주, 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 순창'을 비전을 바탕으로 6개의 추진전



략과 13개의 다양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용방안,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 농촌지역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순창읍과 떨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북서부지역(북흥·쌍치·구림면)의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군 내의 배후마을의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여 16개 작은 거점

육성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군은 지난 3월 110억 규모의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선정, 5월 370억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전북도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보다 효율적인 우리군의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장류축제, 소상공인 '동행축제' 참여업체 모집

자율적 참여 할인 서비스로 관광객·지역 상권 상생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동행 축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류축제는 성년을 맞이하는 20주년을 기념해, 단순한 관광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음식점, 카페, 개인 서비스업 등 관내 소상공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과 군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행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축제 기간 동안 순창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는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행 축제'에 참여해 순창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추경 편성으로 전기차 90대 추가 지원

조기 소진에 국도비 추가 확보 연 2회→3회 보조금 지급 확대

완주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반기 전기차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완주군은 총 사업비 31억 8,33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자동차 197대(승용 123대, 화물 74대)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청년·다자녀 가구 국비 추가 지원 정책으로 국비가 조기 소진되자, 완주군

은 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8월 국비 6억 1,694만 원, 도비 2억 2,057만 원 등 총 8억 3,751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추경 예산에 반영, 전기차자동차 90대(승용 70대, 화물 20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던 보조금 지원을 올해는 총 3회로 늘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승용 전기차는 15일부터, 화물 전기차는 22일부터 각각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인구 10만시대 완주, '10년 후 15만명' 청사진

2035년 15만 인구 달성 목표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 착수

완주군이 2035년 15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인구와 청년 문제를 아우르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은 최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2026~2030년 완주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와 청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성보고회에서는 오영택 (사)전북경제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완주군 주요 간부 공무원,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맡은 (사)전북경제연구원은 주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전문가 자문, 현장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버스승강장 관리 노인일자리 연계 검토

군의회 이순덕위원장 간담회 구체적 과제·효율성 제고 제시

완주군 '버스승강장 관리-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간담회가 최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시니어클럽 김대권 관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민 생활편의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순창발효테마파크 전북 4-H 아영대회로 '활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아영대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젊음의 뿌리, 미래의 열매! 전북 4-H연합회 아영대회, 순창에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전북 4-H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간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첫날에는 개영식을 시작으로, 전북 각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지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디지털 문화식과 함께 '클로버의 향연'이 펼쳐져 참가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했다.

이튿날에는 순창발효테마파크 내 발효소스도구를 탐방하며 순창 고유의 발효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순창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운속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4-H 아영대회는 순창발효테마파크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행안부 사업 선정...상습 침수 근본 해결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화산면 운산지구 선정, 202억 투입

완주군 화산면 운산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상습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매년 반복되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20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그동안 유희태 완주군수는 침수 피해가 잦았던 운산지구를 여러 차례 방문해 주민공청회와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국화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운산지구는 2023년 7월과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고산천 인근 농경지가 침수·유실되는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상습침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예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화산면 우월리, 운산지 일원 상습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인 고산천의 종합 정비를 중심으로 △제방 및 호안 정비 △교량 재가설 △보 및 낙차공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4년도 재해 복구비(국비) 15억 원을 활용해 지난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화산면 우월리, 운산지 일원 상습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박람회 성황

사회복지 유공자 25명 표창 수여 문화공연·홍보·체험 부스 다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2일 사랑의 광장에서 '제26회 남원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8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사회복지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시민과 함께 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열정곱하기 = 복지남원'의 주제와 '기분이 든든한 복지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시민들에게 복지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시장과 국회의원, 남원시의회의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사회



남원시는 지난 12일 사랑의 광장에서 '제26회 남원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8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어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의 기념사와 주요 인사의 축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낭독과 함께 박람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중앙무대와 박람회장 전역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해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논의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검토 행복기숙사 운영 모델 협력 모색

남원시는 지난 11일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예정 부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과 함께 폐교부지 활용 및 행복기숙사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운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남원시 관계자들

도 함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폐교 매입·활용 사례 및 조성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간담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가 향후 개교할 때를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 정주 수요 △청년·신혼부부 주거 인프라 △구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거·문화 복합시설 조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이 운영 중인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절차·기금·운영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부지 재생과 지역연계사업에서의 중개 역할과 주요 사업 취지를 소개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건축물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기획재정부-국민연금공단 '맞손'

도내 첫 상생 자매결연 임실 활성화치즈 특산물 기부 상호 협력 교류 물꼬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함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었다.

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장관과 심민 군수,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과 기재부 및 국민연금공단 간부급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 30여 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증부 출범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방살리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 교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앞으로 △지역 경제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협약식 후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실치즈체험관을 찾아 치즈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여 직접 치즈를 만들어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체험하는 자리를 갖았다 <사진=임실군>

를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지역발전과 주민·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과제에 합의했다.

아울러 세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관광교류와 특산물 판매,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포함해 지역의 특성과 교류 분야(관광·특산물·고향사랑기부) 등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계절 축제 관광지인 임실군의 단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특

산물 공동구매 및 명절선물 교환 등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임실군 관광 홍보 영상 시청과 함께 임실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옥정호 생태탐방 교량 건립, 세계명품 체험공간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반딧불이 전문가 초청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2025년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이 지난 12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한국반딧불이 연구회(회장 남상호)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환경지표근종 반딧불이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회식과 1부 국외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2부 국내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 활동, 3부 종합 토론, 4부 반딧불이와의 만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의 반딧불이 전문가는 물론, 환경 관련 단체 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전대학교 문태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1부 연구 발표에서는 일본 명성대학 이공학부 스즈키 히로부미 교수가 "일본의 반딧불 보호 및 보전 활동"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대만 선안생태건설링 왕 이지에 대표는 "대만의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과 관리"를 중국 연대 대학 생명과학대학원 곽강용 교수는 "반딧불이 연구, 보호 및 개발 이용 발전"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2부 국내 사례는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곤충산업센터 석영식 센터장이 "곤충, 데이터 기반 미래산업"에 관한 내용을 대전대학교 우다현 박사는 "한국산 반딧불이 연구의 서식지 계량학적 분석"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대전대학교 남상호 총장(한국반딧불이 연구회 회장)이 좌장으로 단상에 올라 앞서 발표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은 "환경 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반딧불 축제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닿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 자리가 무주지역의 반딧불이를 지키고 나아가 반딧불 축제와 지구환경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

투명한 의정활동 기대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가 군민 신뢰를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의회는 12일 위촉식을 열고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영리행위 검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 여부 확인,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

한 것으로, 의원들이 윤리 기준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욱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윤리적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 다시 만나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이 지난 14일 무주둔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박찬주 사)반딧불축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방문객과 주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무주군민합창단'과 국악예술단 '시엘', 무주청소년오케스트라 '아란'의 합동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군민의 장 시상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민의 장은 '문화체육장'에 이경숙 씨(53세, 무주읍), '공익장'에 이강우 씨(74세, 무주읍), '효행장'에 이제현 씨(67세, 무풍면) '애환장'에 재경무주군민회 김병구 씨(71세, 안양시)가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에 더해 방문객을 배려한 축제 현장 곳곳의 변화와 시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약했다"라며 "30회 축제에서는 반딧불축제가 당당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희망하우스' 귀농·귀촌인 입주

5세대 9명 입주 지역 인구 증가·활력 회복

진안군은 2025년도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5세대 9명이 새롭게 입주하며, 지역 인구 증가와 활력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희망하우스'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상자들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과 동시에 마을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동의 빈집을 새단장 했으며, 5세대 모두 귀농 귀촌을 위해 진안군을 찾았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집을 제공받아 큰 부담 없이 귀촌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되어 설레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은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36세대 52명이 희망하우스를 통해 동지를 틀었으며, 그 과정에서 빈집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농촌 마을

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범죄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 경관 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 등을 확대해 정주 여건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 공모 선정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억원 사업비 확보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사업 신규 공모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투입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구축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정밀 검사하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규제

를 준수함으로써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에서 추진 중인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공공 급식 등과 연계한 지역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역 농업과 식품 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 강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신축 정사)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총사업비 156억원(국비 70억원, 군비 86억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다.

체계적인 현장 기술지원 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산물안전분석실, 병해충진단실, 토양검정실, 퇴비분석실, 임부지원실 등을 구축하여, 올해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군은 분석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성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안전 먹거리 만족도를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경로당' 운영

건강관리·디지털 교육·안부 확인

장수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형 스마트경로당' 14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부터 7개 읍·면 대표경로당을 포함한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수형 스마트경로당은 고령층의 생활 특성에 맞춰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디지털 교육 △안부 확인 등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건강관리는 혈압, 심박수, 근·골격량, 체수분량 등을 측정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

공한다.

또한 스마트 디지털 교육은 카페·은행·병원·버스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안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경로당 입·출입 정보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한다. 여기에 디지털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 소속 스마트경로당 봉사자를 각 스마트경로당에 배치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부귀면 금계곡마을 상수도 공급 관련 주민설명회

10월 중 공사 착공 예정

진안군은 지난 11일 부귀면 금계곡 마을회관에서 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계곡 마을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관로공사 및 신규 급수 공사,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군에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부귀면 금계곡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올해 총 4억원을 투입해 관로 1.9km 등 상수도 확장 및 시설개량을 통해 35세대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군 상수도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백운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김기욱 임미영 씨

진안군 백운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는(위원장 이보순)은 지난 1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백운면민의 장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백운면의 발전에 헌신 봉사해 귀감이 된 면민에게 수여한다.

심사 결과 올해 면민의 장에는 △문화체육장 김기욱 씨, △애환장 임미영 씨가 각각 선정됐다.

백운면 관계자는 "두 분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백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면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현안해결·국비확보 '원팀 행정' 본격 가동

중앙부처국회 직접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정우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실무부처장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온 전체가 발로 뛰는 행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먼저 최훈식 군수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만나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 군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26호선(진안~장수, 817억원) 사업의 예타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여기에 △국도 26호선(장수~천전~장계), △국도 13호선(장수~장수~천전),

△국도 19호선(장수~장계~계북) 구간 2차로 개량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이 아닌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수군은 말산업 특구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한국마사회 이전의 최적지임을 표명했다.

이정우 부군수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장수군 당위성을 설명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이 대상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과장과 산림과장 역시 중앙부대를 찾았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백두대간 장안산 역새숲 복원 사업의 2026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희승 안호영 의원실과 산림청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국장들의 행보는 이어진다. 농산업 건설국장은 지역구 박희승 의원과 농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농축산 분야 전반의 주요 현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이장단 연합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백만원 기탁

진안군 이장단 연합회는 지난 12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안상용 진안군 이장단 연합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이장단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진안군 이장단 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시는 장학금은 진안의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주민과 단체의 꾸준한 관심 속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금산면 어부바봉사단, 9월 '마을공동밥상' 운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어부바봉사단(단장 신은학)과 함께 '마을공동밥상' 소불고기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독거 노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의 영양 보충을 위해 소불고기 반찬을 400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신은학 어부바봉사단장은 "환절기에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정 금산면장은 "금산면 어부바봉사단의 매월 지속되는 나눔 활동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관내 농축협, 임실군에 3천만원 기탁

임직원 모두 함께 참여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와 관내 농·축협이 지난 9일 임실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갖고 총 3천만 원을 임실군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심민군수를 비롯해 이재문 임실군지부장, 최동선 임실농협조합장, 정철석 오수관촌조합장,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이장식 임실치즈농협조합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임실군지부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협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특히, 농협 임실군지부는 이번 기탁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5,758만 원을 임실군에 기탁했다.

이재문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초록우산 나눔가게' 동참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치호)에 초록우산 나눔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현판 전달은 고창군 소상공인들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도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치호 회장은 "고창군 소상공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 아동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연합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희 본부장은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의 따뜻한 나눔 동참에 감사드리며,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록우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완주 소양농협 유허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농가소득 증대 기여

완주 소양농협 유허광 조합장이 1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농협 창립 64주년 기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유허광 조합장이 신소득 사업 육성 및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영농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구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역 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협력 등 농협이 지역 농촌사회의 중심지로

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허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소양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님의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양농협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최우수조합(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6회, 종합업적평가 전국 2위 수상 5회, 종합업적평가 전국 3위 수상 2회 등 명실상부 전국 최우수조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원광보건대 '동그라미' 동아리, 진안서재능나눔봉사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11일 원광보건대학교 '동그라미' 동아리 학생들이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대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퍼스널 컬러 진단, 스네일아트 스헤어 컷트, 스텝피 진단 및 마사지, △전신 마사지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용·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은 주민들은 활짝 웃으며 학생들의 손길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색상을 추천받는 퍼스널 컬러 체험을 신기해하며 큰 호응을 보였고, 여성 주민들은 네일아트와 두피케어 등 세심한 관리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이서농협, 도농상생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전달

완주군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는 지난 11일 2025년 도농상생 희망이음 농촌지역 청소년 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농촌 중증질환 아동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본 사업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서울 강남농협

(조합장 이종호)이 후원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영욱 조합장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농촌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농촌 가정에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동충동, 순창군 풍산초 찾아 국제드론제전with로봇 소개

남원시 동충동은 11일 자매결연 도시인 순창군 풍산면의 협조를 받아 풍산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홍보했다.

이날 동충동은 풍산초 학생들에게 남원 국제드론제전의 행사 기간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드론·로봇 스포츠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풍산초 한 학생은 "평소 드론과 로봇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국제드론제전에 꼭 가서 직접 조종해 보고, 로봇도 탐색해 보고 싶어졌다"라며 "부모님께 꼭 같이 가지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김치남 동장은 "풍산초 학생들이 평소 접해 보기 어려운 드론과 로봇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과학기술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 진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인근 학교들과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우리의 강이 깨끗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물에 무관심할때, 강물은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의 비병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때, 비로소 맑은 강과 건강한 미래를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一事一言〉



골목에서 시작하는 연대로 전북 경제 살리자

김관춘
논설위원

전북의 골목 골목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이 짙게 깔려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과 1년 사이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통계로 드러난 수치도 심각하지만, 체감 현상은 더욱 냉혹하다. 전주와 도내 14개 시군 곳곳에 내걸린 '임대' 안내문은 단순한 상가 공고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한 자영업자의 절규다.

이런 와중에도 거대한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 광고비 전가 등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삼아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배민은 4조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매출과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매출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떠안은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문이 늘어도 빛만 늘어났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생태계 속에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진보당 전북도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업 도입 운동'이 그 출발점이다. 배민규제법이 요구하는 수수료 상한제, 광고비 전가 금지, 임점업체 단체협의권 보장은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다. 동시에 공공이 주도하는 광역 공공배달업은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구조에 균열을 내는 대안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광주 '위메프오', 전남 '떡깨비'는 0~2%대의 낮은 수수료, 광고비 없는 구조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며 소비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그 자체가 지역 경제 회복의 불씨였다. 공공배달업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전주·군산이 개별적으로 시도했으나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 난관, 예산 제약으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더 이상 기초단위의 분산된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은 참여 가맹점 확대, 예산 안정성, 홍보력 확보 모두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공공배달업이 단순히 거대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참여와 연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이 소비자로서 힘을 보탬 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실제로 경기도 배달특급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도민들의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업이 성공하려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는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전북의 정당과 시민단체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외식업 협회, 배달 라이더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여기에 도민이 소비자로서 동참하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민생회복 운동이 된다. 공공배달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행동이고, 배민규제법을 지지하는 것은 골목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는 연대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자본의 탐욕에 맞서 지역민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다. 이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통이다. 전북이 앞장서 광역 공공배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 전북이 직면한 민생경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연대와 희망의 가능성을 본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거대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존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 있는 골목에서부터 민생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업 구축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존 전략이다.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와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일에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힘을 모아라. 그것이야말로 침체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길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도민의 작은 실천과 연대가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업과 배민규제법은 그 출발점이다.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내고, 골목과 시장에서부터 전북 경제를 되살리는 길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우리의 연대가 곧 희망이고, 희망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

사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미래의 핵심 기반이다

전북 하늘길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달려오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 등 핵심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국가 기간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판결은 냉정하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비 편익)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더구나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된 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돼 왔음을 꼬집었다. 또한 공항 안전의 최대 위험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부실했고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천 깎발 등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 역시 미흡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민이 받아든 현실은 무겁다. 오랜 세월 전북의 하늘길 개통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속에서 전북은 늘 소외돼 왔고, 이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와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돼 왔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반하는 판결"이라

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길은 분명하다. 법적 공방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항소심에 대비해 사업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보완하는 치밀한 자료와 논리를 갖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전례를 되새겨야 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국민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또다시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환경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새만금신공항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도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할 때만이 흔들림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북의 하늘길 개통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 속에서 전북은 늘 소외돼 왔고, 이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요인이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와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돼 왔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반하는 판결"이라

문화재 열전



김계 금부사 불상 및 복장유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2017년 11월 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197-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매미 / 차옥혜

가을이 되고서야 하늘을 본다
날마다 팔 다리에서 온몸으로 마비증세가 퍼져간다.
아무리 노래를 해도 울림이 없다.
여름날 몸을 떨던 나뭇잎이 어디론가 사라져 간다.
어찌하여 들꽃들은 무릎 꿇기 시작할까

왜 나무는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까
여름내 노래 불러준 모든 것이
왜 나를 거부하고 있을까
이 삭막한 대지를 적시는 비는 무엇인가
이제야 끝없는 물음에 하늘만 자꾸 넓어져 간다.

시인 약력 : 1945년 전주 출생. 전주여고와 경희대 영문학과의 동국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경희문학상과 경기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깊고 먼 그 이름' '비로 오는 그 사람' '발아래 있는 하늘' '흙바람 속으로' 등이 있고, 서사시집으로 '바람 바람꽃 -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시선집으로 '연기 오르는 마을에서' '햇빛의 몸을 보았다' '그 흔들림 속에 가득한 하늘'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오싹한 가을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온다!

9월 18~21일, 26~28일 총 7일
‘미스터리연구소-끝나지 않는 실험’
짜릿한 공포체험 사전예약 혜택도

익산시가 가을밤 오싹한 즐거움을 선사할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호러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행사로, 오는 18~21일에 이어 26~28일 두 번으로 나눠 총 7일간 익산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린다.

2022년 첫선을 보인 이 축제는 해마다 관람객이 늘며 2022년 1만 3,000여 명, 2023년 2만 5,000여 명, 지난해 3만 5,000여 명이 다녀가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올해 역시 3만 명이 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제는 ‘미스터리연구소-끝나지 않는 실험’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비밀 실험이 해가 진 교도소 세트장에서 되살아나며, 관람객은 극한의 몰입형 공포 체험 속에서 실험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축제는 오는 18일 오후 6시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식에는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축하 호러댄스 공연과 세레모니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행사 기간 교도소 본관 외벽에서는 매일 네 차례 ‘호러 미디어파사드’가 상영돼 주제 스토리를 실감 나게 구현한다. 또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눠 열리는 ‘호러 코스프레 대회’와 다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레이킹 댄스’ 게임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코스프레 분장을 한 스태프들의 패션쇼 ‘고스트런웨이’, 전문 공연팀이 선보이는 ‘호러 플래시몹 챌린지’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매일 이어진다. 이 밖에도 돌발 퍼포먼스와 포토타임이 결합된 ‘호러 캐릭터 쇼’와 삼각엽표식 연구

실(호러 페이스페인팅) △실현체 인식표 만들기(벤티 제작) △공포 테마 VR게임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익산 대표 홀로그램 기업들이 참여하는 ‘홀로그램 B2B관’에서는 최신 기술과 제품이 소개되며 산업 네트워크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데이터 쿠폰’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메인 콘텐츠인 홀로그램 공포체험에 참여하려면 데이터 쿠폰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는 쿠폰 5개가 미리 제공된다.

시는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동선을 분산시켜 대기 혼잡을 예방한다. 행사장 내 주차는 전면 통제되며, 오후 5시부터 10시 20분까지 2개 노선의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전 문의를 통해 행사장 인근 별도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holo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는 행사 마지막 날까지 가능하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올해 페스티벌은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스토리텔링과 업그레이드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며 “첨단 홀로그램 기술이 구현하는 극강의 공포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가을밤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익산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홀로그램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주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